

한미경제협의회·극동경제위원회·아시아협회주최 오찬 연설

경제에서도 「서로 돕는 시대」를

1981년 1월 31일

「해리 테일러」 한·미경제협의회장, 「탈보트」 아시아협회장, 「덕커」 극동경제위원회장,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신사 숙녀 여러분!

본인은 미국국민들이 새로운 행정부를 맞이하여 새로운 기대와 희망에 차 있는 시기에 「뉴욕」을 방문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귀빈들은 미국경제의 주역일 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분들로서, 특히 동부 아시아와 미국 사이의 경제협력관계를 발전시켜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분들입니다.

더우기 오늘 이 자리에는 한·미경제협력에 많은 공헌을 해온 재계의 지도자들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이 기회에 한·미경제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같이 생각하면서 두 나라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생각을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수교한 지 이미 한 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두 나라 사이의 긴밀한 경제관계의 첫단계는 사실상 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부터 시작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아 오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1950년부터 3년간 계속된 한국전쟁 기간과 그 후 전쟁의 폐허 위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는 동안, 우리의 생존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 준 미국은 한국 국민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남침을 격퇴하는 데 있어 미국이 제공한 군사적 기여에 덧붙여 우리는 미국의 무상원조가 빈곤에 허덕이던 당시 한국경제에 이바지한 공헌을 지극히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미경제관계의 제2단계는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에 걸쳐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한국경제는 공업화의 제1보를 내딛기 시작하여 이른바 급속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발전을 한국경제의 제1차 도약이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 기간 중 특히 주목할 일은 활발한 해외시장의 개척이었습니다.

이 기간은 생존을 위한 단순한 원조의 차원을 넘어서서, 두 나라가 다양한 경제협력을 전개한 시대였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새로운 기술과 경영상의 경험을 빌려 주었고, 차관을 제공하여 공장과 사회기초시설을 빨리 건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업제품을 수출할 수 있도록 미국의 시장을 크게 개방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시장을 개척함으로써 우리는 세계16번째의 무역규모를 가진 나라로 오늘날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제2단계의 협력은 제1단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협조였습니다. 그것은 아직도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지원의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제1단계와 제2단계를 거쳐 이제 제3단계의 경제협력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는 양국의 발전을 위해 협력할 뿐만 아니라, 양국이 세계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로 돕는 시대를 만들어가야 하겠습니다.

아시아는 미국의 시장으로써 세계에서 제일가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수출품을 유럽보다도 아시아가 더 많이 사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두 번째로 큰 미국의 시장으로서 작년 한 해만에도 미국으로부터 근 50억불어치를 수입하였습니다.

2,3년간을 제외하고 1945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수출흑자를 계속해 왔습니다. 우리는 미국의 실업가들이 앞으로도 상품수출, 기술협력, 자본투자 등 각 방면에 걸쳐 한국에 진출하는 것을 환영하고 장려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이 서로 협력하여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통상을 확대하는 것이 빈곤으로부터 탈피하여 인류를 번영으로 인도할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원의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성장을 반대하는 일부 인사들의 주장에 본인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후진국 사람들의 생활수준 향상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자원의 부족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협력부족과 개발의 동반자로서 공존·공영하겠다는 신념의 부족, 그리고 개인의 창의력 발휘에 적합하지 않은 사회체제 등으로 성장의 한계를 자초한 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후진국이나 선진국이 공업화하고 통상을 확대하는 것을 반드시 선진국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서로 시장을 개방하고 무역을 확대해 가면, 이는 오히려 세계적인 경제성장에 활력소가 되고 후진국의 자원개발을 촉진하여 성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상과 같은 지론에 입각하여 한·미양국은 앞으로도 자유기업체제의 장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면서, 상호협력의 동반자로서 세계경제의 성장과 무역확대를 위해 가일층 노력할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한국에서는 지금 경제운용에 있어 정부의 역할보다 민간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는 지난해의 경제후퇴를 만회하고, 80년대의 제2의 도약을 기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본인은 믿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민간주도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금년 여름까지 이 작업은 완결되어, 외국인들의 투자환경이 대폭 개선될 것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대단한 경제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원인은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한 무역확대의 저조, 이상기후로 말미암은 농업생산의 부진, 과도한 노임단가의 상승, 그리고 정치 및 사회의 불안 등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불안을 가지고 안정이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를 무릅쓴 원화의 평가절하로 국제경쟁력도 회복됐습니다. 노임단가의 안정을 위한 노력이 또한 기울여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수출이 늘기 시작했고, 수출주문도 45%이상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는 투자와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12월부터는 경기회복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같은 추세가 계속 유지되면 국제수지도 개선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앞으로 기술혁신과 품질개선으로 한국상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 우리는 인플레이를 감속시키기 위해 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갈 작정입니다.

지난 2년간 통화증가율을 연간 20% 이내로 유지함으로써 총수요면에서도 안정기조가 확보됐습니다. 공급과 수요 양면에 걸친 안정노력이 성공한다면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금년에 20% 선으로 감속될 것이며, 내년으로 10% 내지 15%선으로 안정될 전망입니다.

우리의 궁극적 물가정책의 목표는 우리의 무역상대국들의 평균 물가상승률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데 있습니다.

고도성장 속의 70년대 한국경제가 과잉투자와 인플레이를 잡지 못한 과오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본인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에 이같은 구조적 과오를 정리하려고 우리는 대단한 경력을 소모했고, 이제 그러한 문제점들은 점차 시정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성장세는 반드시 회복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안정 속에 성장을 이룩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은 물론입니다.

우리는 불리한 여건하에서 끊임없이 닦쳐오는 난관을 계속 극복하면서, 가난했던 나라를 신흥공업국으로 키웠습니다. 미국의 경제적 지원을 받은 많은 나라들 중 한국은 이제 미국과 함께 다른 후진국을 돕기 위해 세계은행의 극빈국가 원조창구인 국제개발협회에 출자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끝으로 다시 한번 한·미 두 나라의 경제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한국은 앞으로 미국의 자본과 기술이 광대한 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는 중간기지로서의 역할과 협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협력은 비단 양국의 이익증진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제성장과 무역확대에 공헌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